

골목인생서가  
15人冊

기획: 소소한마을공동체  
제작: (사)서울문화네트워크  
디자인: 홍지선  
글·인터뷰: 유성호 이순주 차도연 홍정화  
발행일: 2020년 11월 27일

골목인생서가

골목인생서가  
15人冊



越村책마을도서관길, 골림골목

골목인생서가



골목매거진 특별판

# 15人冊

越村책마을도서관길, 끌림골목



골목인생서가

# 나의 인생, 나의 책 신들의 정원, 하늘길을 걷다

장수회관

한경환



“삶이 고달프고 일상이 힘겨울 때,  
고난의 산행을 떠올리며 자신을 채찍  
질하고 되돌아볼 수 있다.”



저자: 유영국

越村책마을도서관길, 끌림골목

## 한경환

장수회관의 한경환 사장은 음식점을 시작하던 때부터 계량화를  
시작했다. 젊은 날 대림산업에 다니던 때에도 측량 업무를  
담당했으니 사장님 성격의 깔끔함은 타고난 면모라 하겠다.  
1983년에 첫 문을 연 한식당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모든 재료를 국내산으로 고집하고 최고품질을 고른다는  
원칙을 단 한 번도 어겨본 일이 없다. 밥장사는 양심으로 하는  
거라고, 쌀은 영혼의 양식이라고 말하는 그의 품격에 장수회관의  
장수 비결을 알아챌 수 있다.

환갑을 넘기며 도전한 2012년 해발 5500m의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 등반을 그는 자기 삶의 가장 빛나는 순간으로  
간직하고 있다. 러시아와 말레이시아의 5000m 산행을 이어갔다.  
3년 전부터 저녁이면 기타를 익히고 캘리그래피를 연습한다.  
매일 아침 배봉산을 산책하는 그의 마음에는 또 다른 산행의  
소망이 남아있다.

‘무릎이 허락한다면 킬리만자로의 눈이 녹기 전에 그곳에 오르고  
싶다’는.

상호명	장수회관 since 1994
상점소개	내 가족 상차림처럼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로16길 16
연락처	02-2243-5678

골목인생서가

# 나의 인생, 나의 책 삼국지

전농서적

기근천호



“다양한 캐릭터 중에서 나는 과연 어떤 인물  
에 가까울까? 라는 호기심도 생기고 좋아  
하는 영웅들의 민초들을 위한 활약상 등...  
우리 때 청소년기와 청년기에 꼭 읽어야 했던  
책!”



저자: 나관중

越村책마을도서관길, 글림골목

## 김철호

1971년에 문을 연 전농서적은 눈앞에 50년의 역사를 두고 있다.  
전농동 로터리의 이 서점을 이어 지키는 사람은 김철호 사장.  
아버지 김기두님의 가업을 이어받았다. 학교가 많은 전농동의  
특성으로 긴 세월 동안 전농서적은 참고서가 주류를 이루었다.  
지금도 매일 아침 이른 시간에 문을 여는 사람은 87세의 아버지다.  
오전 11시에 철호 씨가 출근을 하면 아버지의 하루 근무가 끝난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일을 잇게 되었다는 김철호 사장은  
태어나고 자란 곳이 전농서적이고 아마도 그의 미래도 여기일  
것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업을 생각할 때에도 출판사를 생각할  
정도로 그의 삶은 책과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서점에 앉아  
바라보는 전농 로터리 풍경 중에 불편한 자식의 몸을 보듬어 매일  
학교를 보내는 어느 어머니가 있다. 부모 마음을 이제 아는 나이가  
되었기 때문인지 그 모녀를 볼 때마다 마음이 뭉클해지고 코끝이  
저려온다. 저녁이면 아내가 마련한 안주 앞에 맥주 한 잔을 두고  
거실을 가로지르는 자식들을 바라본다. 그는 '사람이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그것이 행복이라고' 말한다.

상호명	전농서적 since 1971
상점소개	삶의 깊이가 변화된다.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사가정로 119
연락처	02-2245-2248



내  
인  
생  
의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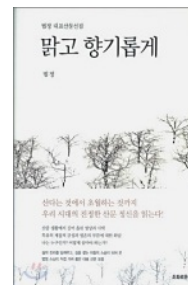
허  
재  
범

골목인생서가

# 나의 인생, 나의 책 맑고 향기롭게



“자연스러움이 곧 건전하고 건강한 삶을  
깨닫습니다. 이 책을 통해 보람된 인생이란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닌, 의미를 채우는  
삶이어야 함을 배웠습니다.”



저자: 법정

越村책마을도서관길, 글림골목

## 허재범

허재범 원장은 전농로 16길 골림골목에서 3대째 내인당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조부께서 기틀을 닦고, 부친이 크게 이루었다. 예나 지금이나 환자들의 시대별, 세대별 특징은 대동소이하지만, 예전보다 한방치료에 대한 의존도는 낮아지고 있다고 말하는 그는 한의사로서 더욱 분발하겠다고 말한다. 법정스님의 책들과 말씀들은 힘들 때마다 그에게 정신적으로 큰 위안이 되었다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법정스님 책들 중 절반은 스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황급히 구매한 것들이라고. 아마 자신은 ‘스님의 무소유 정신을 오히려 소유하고 싶었나 보다’라며 웃는다. 건강 관리 비법을 물으니 현대인이라면 너나없이 가지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고 극복하느냐가 건강관리의 핵심이라고 조언한다. 건강한 마을, 활기찬 동네를 만들기 위해 3대 의가의 소명을 다하겠다는 아마도 허재범 원장은 스트레스 관리의 비법을 법정스님의 말씀에서 찾은 것이 아닐까.

상호명	내인당한의원 since 1965
상점소개	대대로 전해온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근본치료에 매진하겠습니다.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로16길 30
연락처	02-2244-3085

골목인생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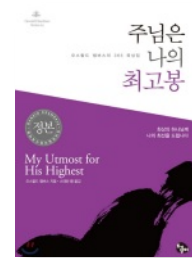
# 나의 인생, 나의 책 주님은 나의 최고봉

하영부동산

천우주



“항상 곁에 두고 읽는 책은 오스왈드  
챔버스의 365 묵상집 <주님의 나의 최고봉>  
이다. 어릴 때 종교에 입문해서 믿음을 실천  
하며 손해는 내가 감수하는 것이 편하다는  
마음으로 사업에 임하고 있다.”



저자: 오스왈드 챔버스

越村책마을도서관길, 골림골목

## 권옥수

권옥수 사장은 16년 전, 아이들 교육에 도움이 되고 싶어서 이곳 끌림 골목에 부동산중개소를 열었다.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아파트가 들어선 것을 제외하면 외형적으로 거의 변함이 없는 동네인데 상권은 점점 약해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변함없이 정직과 신용을 원칙으로 삼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에 스스로 자부심을 가진다. 어렵게 살림을 시작했던 손님이 자신의 집을 사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 내 일처럼 기쁘며 보람을 느낀다고, 한편으로 살림살이가 팍팍해진 손님을 대할 때면 마음이 아프다고 전하는 권옥수 사장은 부동산 중개인에 앞서 한 동네 이웃의 정을 내비친다. 점점 더 까다롭고 각박해진 손님들 인심으로 마음이 지칠 때는 사업을 그만두고 싶다가도 명절연휴에 집에서 지내면서 일을 하고 있음에 감사함을 느낀다고, '내가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편하다는 마음으로 사업에 임하고 있다'며 골목상인 모두가 사업이 번창하고 행복하면 좋겠다고 덕담을 전했다.

상호명	하영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 since
상점소개	신의 성실로 책임 중개합니다.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로16길 26
연락처	02-6414-97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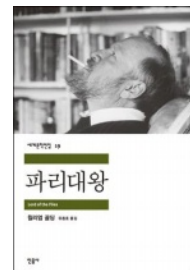
골목인생서가

# 나의 인생, 나의 책 과리대왕



아  
빠  
가  
빅  
은  
떡  
장  
성  
호

“이 책을 통해 인간의 본성으로 인한  
사회구조를 이해할 수 있었다.”



저자: 윌리엄 골딩

越村책마을도서관길, 끌림골목

## 장성호

전북 남원이 고향이고 이 골목에서는 8년째 '아빠가 빚은 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떡 공장에서 일을 배우면서 주위 분들의 많은 도움으로 전농동에 빨리 정착한 편입니다. 떡집 이름은 젊은 시절에 시집을 출간한 아내가 지었어요. 함경도 전통 떡인 '오쟁이 떡' 반응이 제일 좋아요.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이상화 선수 어머니가 단골손님이죠. 개인적인 잔치를 많이 안해서 예전보다는 손님이 많이 줄었고, 일의 특성상 새벽에 잠을 못 자서 힘들지만, 동네 분들과 함께 즐긴다는 마음으로 합니다. 죽을 때까지 떡집을 하고 싶고, 떡을 배우고 싶다는 분이 있으면 기술을 전수해 주고 싶어요.

상호명	아빠가 빚은 떡 since 2012
상점소개	떡 하면 아빠가 빚은 떡, 아빠의 마음이 담겨있어요.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로16길 6
연락처	02-2246-5579

골목인생서가

# 나의 인생, 나의 책 말의 품격



새  
마을  
골목

김  
란  
희

“나의 말에 내 인성과 품격이 전달되기에 말  
전달에 고심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저자: 이기주

越村책마을도서관길, 글림골목

## 김란희

김란희 이사장은 배봉새마을금고에 85년 입사, 올해로 36년째 근무하고 있는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전농동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닌 그에게 이곳은, 언제든 찾아갈 수 있는 친정집처럼 익숙한 공간이면서 36년째 일하는 일터가 있는 곳이다. 하루 중 동이 트는 아침을 제일 좋아하고, 나의 인생도 이제 시작이라고 말하는 김란희 이사장의 원동력은 사랑하는 가족이다.

그는 늘 사람의 단점보다 장점을 먼저 보고 모두에게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통해서 배우고 얻어지는 에너지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그런 김란희 이사장에게 긍정의 힘은 어디서 오는지 물으니 그저 열심히 살아왔고, 열심히 살고 있다는 대답이다. '저는 지난 시간을 잘 지나온, 현재 내 삶을 사랑합니다.'라며 덧붙였다.

상호명	배봉새마을금고 since 1975
상점소개	요람에서 무덤까지, 새마을금고와 항상 같이.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로16길 17
연락처	02-2246-3169



한국종합인테리어  
김재술

골목인생서가

# 나의 인생, 나의 책 나의 정치인생 반세기



“양심이 있고, 정직하며 중립적인 정치를 한  
사람이라 존경한다.”



저자: 이만섭

越村책마을도서관길, 끌림골목

## 김재술

김재술 사장은 '한국종합인테리어'라는 설비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조그만 식당의 주방장도 해보고, 천막 제작도 해보았지만 지금의 설비 일이 가장 적성에 맞는다고 했다. 일의 특성상 여러 스타일의 손님을 만나게 되는데 까다로운 사람, 친절할 사람, 때로 무시하는 이들도 있단다. 그러나 그는 모든 고객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대한다고. 그래서인지 단골손님이 꽤 많은 편이란다. 서울에 올라와 전농2동에서만 살아서인지 그는 이 골목에 애착이 많다.

'늘 최선을 다하자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생활해요. 더 바라는 것은 없고, 이대로도 행복하지만 노력의 대가가 주어지는 세상이 오면 좋겠어요. 그런 세상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활짝 웃는 그의 희망이 이웃을 향한 위로로 느껴졌다.

상호명	한국종합인테리어 since 1999
상점소개	전농2동 맥가이버!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사가정로16길 11
연락처	02-2246-8808

골목인생서가

# 나의 인생, 나의 책 푸시킨 시집

현대이용원

임정재



“어려웠던 시절 나의 삶을 지탱해준 주옥같은  
글귀 때문이다.”

저자: 알렉산드르  
세르게예비치 푸시킨



越村책마을도서관길, 끌림골목

## 임정재

“임정재, 이규홍 우리가 이곳에 터를 잡고 함께 이발한 것이 반세기가 넘었네. 이발을 업으로 삼아 함께 달려 온 시간이 참으로 길었네 그려. 임정재, 나는 원래 자동차 일을 하고 싶었지. 그런데 운명의 여신은 그런 나를 가만두지 않았어. 자동차 정비 중에 몸을 다쳤고 아버지는 그런 나에게 이발 기술을 배우게 했지. 처음엔 그게 싫어서 가출도 했지만 결국은 가위를 다시 잡았지. 규홍이 자네 역시 친구들 때문에 이발을 시작했다 들었네. 결국 이발 기술이 우리를 50년 동안 함께 하게 한 운명의 끈이 된 게지. 나는 푸시킨의 시구가 좋다네. ‘삶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마라’. 삶이 우리 뜻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일깨워준 시구라네. 그럼에도 삶을 사랑하며 우리의 우정도 변치 말자네.”

이것은 반백 년을 함께 해온 파트너 이규홍 사장에게 임정재 사장님이 전하는 우정의 시라고 하겠다.

상호명	현대이용원 since 1970
상점소개	반백년 변치 않는 우정으로 만든 모범 이용원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로16길 26
연락처	02-2217-1406

골목인생서가

# 나의 인생, 나의 책 너의 취장을 먹고 싶어



빈's  
헤어  
김현숙

“취장을 먹고 싶다는 제목은 듣기에  
혐오스럽지만 좋아한다. 사랑한다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이다.”



저자: 스미노 요루

越村책마을도서관길, 글림골목

## 김현숙

20대 청춘이 가장 빛날 때 미용 일을 시작했다. 어려서부터 머리 만지는 걸 좋아했다. 주변 사람들이 머리하는 걸 가까이서 보고 자란 이유로 시나브로 그 길에 한 발짝 들어가 있었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이 일을 좋아한 건 아니었다. 일종의 오기로 시작했는데 10년이 지나면서 관록이 붙자 일이 재미있어졌다고. 혼자 하는 일이라서 좋고 무엇보다 이 골목이 마음에 들어서 오래도록 하고 싶다면서 그는 자신의 아름다웠던 청춘시대를 사랑한다고 말한다. 자신의 청춘시대를 공감하게 한 이유였을까. 그는 추천한 인생책에 대한 소개를 다음과 같이 이어간다.

“누구에게나 청춘은 있고, 누구에게나 아픔이 있죠. ‘너의 체장을 먹고 싶어’는 일본 작가 스미노 요루의 작품으로 제목만 보아서는 고어물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체장이 아픈 여주인공이 사람들은 자신이 아픈 부위와 똑같은 동물의 부위를 먹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남자 주인공에게 전한 말을 제목으로 따온 거랍니다”

상호명	빈's 헤어 since 2016
상점소개	머리하고 싶은 행복한 가게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로16길 26 1층
연락처	02-3390-4656

골목인생서가

# 나의 인생, 나의 책 무소의 뿔처럼

신홍방아간

류휘상



“불교 교리를 배우는 책으로 부처의 말씀을  
새기고 심란한 마음을 정리하는데 좋은 책이  
다.”



저자: 김재영

越村책마을도서관길, 골림골목

## 류휘상

“들어가는 것이 좋으면 만들어지는 것이 맛있는 법이오”. 방앗간도 마찬가지로 말문을 열었다.

먹을 것과 이야기가 많은 곳이 방앗간이었다. 한때는 떡을 빼려고 길게 늘어난 줄 사이를 가늠하며 고추 뺑는 기계도 돌리고 참기름도 짜면서 바람처럼 날아다니던 시절도 있었다. 지금은 방앗간이 현대식 기계로 떡을 만드는 떡집으로 변했는데 류휘상 사장은 거기에 끼어들어 변화하지는 못했다. 아니, 안했다고 해야 할까. 그는 방앗간이라는 이름에서 오는 아련함과 편안함을 유지하고 싶다고 했다. 방앗간이 항상 고소하고 매콤하고 하얀 김이 모락모락 나기 위해서는 좋은 재료가 필수다. 고소하기 위해서는 참깨가 좋아야 하고 매콤하려면 잘 마른 붉은 고추가 제격이듯이 쫄깃쫄깃한 떡을 먹으려면 쌀이 좋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는 좋은 재료를 고집한다.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짓는 쌀을 가져다 떡을 만들고 그 맛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사장님이 말하는 떡에 대한 말이 인상적이었다. “무엇을 넣어도 다 수용하고 받아들여 자신을 바꾸고 다른 재료를 빛나게 하는 떡처럼...” 그가 맺지 못한 말을 대신 잇는다면 이렇겠다. 그런 떡처럼 자신의 방앗간도 묵묵히 손님과 함께 그렇게 가겠노라고...

상호명	신흥방아간 since 1991
상점소개	가래떡처럼 잔잔한 맛을 내는 한결같은 방앗간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사가정로13가길 3
연락처	02-2215-0517



골목인생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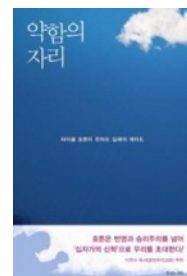
# 나의 인생, 나의 책 약함의 자리



연세대학교

심희순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교회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울림으로 다  
가왔다.”



저자: 마이클 호튼

越村책마을도서관길, گل림골목

## 심희순

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은 누군가가 항상 찾아오기 때문이다. 약사라는 직업은 작은 자리에서 벗어나기 힘들지만 세월의 변화 따라 사람들이 변해가는 것을 고스란히 알 수 있는 직업이기도 하다. 약국을 이용하는 오랜 단골들은 젊었을 때는 소소한 감기약이나 영양제를 사러 약국에 들렀지만 이제는 혈압약이며 당뇨약 같이 묵직한 병에 먹는 약을 받으러 온다. 이 골목에서 오랫동안 약국을 운영하면서 휴일이나 명절에도 약국 문을 여는 것은 동네를 위한 약국이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동네 사람이 휴일에 약을 사러 나왔다가 아픔을 참으며 돌아설까 봐. 일요일에도 쉬고 싶지만 두 번만 쉬는 까닭은 일요일에 약국이 열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35년 동안 한 자리를 지켜서인지 이제는 어디 사는 누가 어디가 아프고 이 골목 어귀에 사는 누구는 어디가 안 좋은지, 모르려야 모를 수가 없다. 심희순 약사에게 오랫동안 약국을 지키는 원동력은 어디서 오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선뜻 “자부심이지.”라고 말한다. “나는 이 골목에 오래된 베테랑 약사니까. 내가 준 약을 먹고 나서 다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이웃으로 기쁘고 약사로서 책임감도 느껴요. 내가 이 골목에서 꼭 필요한 약사라는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런 대답을 하는 약사가 이 골목에서 살고 있다. 타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살 만한 일이 아닌가.

상호명	연세약국 since 1982
상점소개	건강을 지키는 마을 약국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로16길 11
연락처	02-2213-12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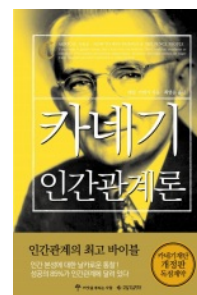
골목인생서가

# 나의 인생, 나의 책 카네기 인간관계론



“성공하는 사람들의 성공하는 이유들이 잘  
나와 있다.”

저자: 데일 카네기



## 라영기

‘이웃들에게 깨끗함을 돌려주는 것이 내가 하는 일’  
그는 젊은 시절에 양복점에서 일했다. 힘든 배움의 과정을 거쳐서  
재단을 하고 양복을 만들었다. 당시는 다 양복을 맞춰 입는  
시기였고 그 만큼 보람도 컸다. 자신이 만든 옷을 사람들이 입고  
자신이 바느질한 옷을 사람들이 입는다는 생각에 날마다  
짜릿하던 시절도 있었다. 명동 거리에도 라영기 사장이 만든  
작품이 걸어 다니고 있었다고. 자신의 몸에 맞게 좋은 천을  
골라가며 꼼꼼하게 바느질 솜씨를 따지던 손님도 손님에게 더  
좋게 멋지게 한 땀이라도 더 정성 들여 옷을 만들던 젊은 라영기도  
그때는 의식주에서 ‘의(衣)’가 제일 앞에 있었다. 물론 그런  
호시절은 오래 가지 않았다. 기술의 발전으로 기성양복들이 나왔고  
옷은 흔한 공산품이 되었다. 그러면서 맞춤복이 사양길에  
접어들었고 의복과 관련된 세탁업으로 변경을 했다. 하지만 자신이  
원래 잘 하던 일과 분리되지 않고 여전히 의복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기에 불만은 없다고 한다. 옷은 소재나 바느질 같이 만드는 것  
만큼이나 관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일 역시 옷 짓는 일에  
버금간다며 라영기 사장이 말을 잇는다. “이 골목에서 주민들의  
깨끗한 의생활을 책임지는 것, 그것이 내가 사는 방식이고 이웃과  
함께 하는 좋은 인간관계인 거예요”

상호명	백성컴퓨터크리닝 since 2008
상점소개	깔끔한 주민의 품격을 지켜드립니다.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사가정로13길 16-1
연락처	02-2213-6784

골목인생서가

# 나의 인생, 나의 책 엄마를 기다리는 아기울배미

에스라인 이정화



“아기울배미 세 마리가 엄마가 돌아올 것을  
믿고 서로 의지하는 것이 우리집 아이들을 보는  
것 같아서 읽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진다.”



저자: 마틴 워델

越村책마을도서관길, 끌림골목

## 이정화

동대문구 답십리에서 태어나고 성장했다. 그리고 지금은 전농동이 골목에 정착해서 살고 있다. 그는 진정 동대문구 사람이다. 그리고 그의 세 자녀 모두 이곳에서 나고 자라 동대문구에서 초, 중, 고를 다니고 있다. '살짝 미치면 인생이 즐겁다'고 말하는 그는 클래식 기타에 미쳐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전농동 엄마들과 교류하게 되고 그러면서 동네를 더 좋아하게 되었다. '가만히 있는 것을 잘 못하고, 새로운 것, 다른 것을 하고 싶어 하는' 그는 한 곡만 연습하면 지루할 수 있어서 연습하던 곡을 완성하고 나면 다른 곡을 연습하고, 매일 도전하고 싶은 뭔가가 계속 생긴다고 한다. 어려서부터 하고 싶던 기타였는데 어느새 할 수 있게 된 건 배봉꿈마루청소년독서실과의 인연 덕이라고 한다. 그에게 동네 소개를 부탁하자 해맑은 미소로 목청을 높였다.

"이 골목은 활기차서 좋아요. 배봉꿈마루청소년독서실이 있어서 활동도 할 수 있고요. 배봉꿈마루에 오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많이 오세요."

이름	이정화 (배봉꿈마루 소소한마을공동체 에스라인 대표)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로 16길 3
연락처	02-2212-0012

골목인생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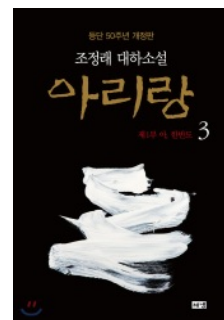
# 나의 인생, 나의 책 아리랑



데  
이  
터  
큐  
레  
이  
터  
  
장  
명  
숙

“작품의 장대한 서사적 구조와 문학으로  
응축한 문장이 좋다. 치열하게 집필하던 50년  
의 시간을 ‘항훈한 글의 감옥’이라고 회고하는  
작가를 보며 나도 닮고 싶다.”

저자: 조정래



越村책마을도서관길, 끌림골목

## 장명숙

(그가 글을 쓰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에 이번에 자신에 대해 스스로 소개글을 적어달라고 부탁했다. 역시, 부탁하길 잘했다. 그는 이미 시인이라고 말하겠다.)

### 나의 이야기

어느 날 문득, 그가 내게로 왔다. 어떤 이유로, 어떤 경로로 내게로 불쑥 찾아들었는지 알 수가 없다. 햇살이 유난히도 따사롭게 반짝이던 초가을이었고, 가슴에 소슬바람이 일렁이기 시작하는 사춘기로 접어들던 무렵이었다. 장래희망을 묻는 담임 선생님께 나는 덜컥 '시인'이라고 대답했다. 시인이 무엇인지 몰랐고, 시인을 만나본 적도 없는 나였다. 그리고 갓난아기가 웅알이를 하듯이 의미를 알 수 없는 글을 가끔 쓰면서 지금에 이르렀다. 그렇게 웅덩이에 빠진 문학소녀의 꿈은 이무기가 되어 반세기를 아우르는 긴 시간 동안 첫사랑처럼 내 안에 머무르며 승천의 그 날을 고대하고 있다. 낙인이 찍히듯 내 안에 새겨진 흔적. 마음에 파도가 일렁일 때면 나는 내 안의 웅덩이로 찾아 들어간다. 언제 어느 때나 찾을 수 있는 오롯이 나만의 세계를 지니고 있는 나는 행복하다.

이름	장명숙 (슈필라움작은도서관 데이터큐레이터)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로 16길 30, 2층
연락처	010-5447-2176



골목인생서가

# 나의 인생, 나의 책 아미타경



“저세상으로 간 모든 이들이 극락세계에 가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읽는다.”

저자: 편집부



越村책마을도서관길, 끌림골목

월초고유부엌

다행이다

김선유

## 김선유

20대 초에 결혼에서 산 집이 지금껏 사는 집이다.  
몇 해 후면 50해를 꼽아볼 것 같다. 서울에서 드문 일이고  
전농동이기에 어쩌면 가능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그녀의  
자녀들은 한 집에서 나고 자라고 출가했다. 3년 전 남편이 떠나고  
난 자리가 얼마나 깊었을까 짐작해 본다. 오래전부터 불가에서  
마음의 위로를 받았다는 그녀는 사찰음식 전문가이다. 불교에서는  
남을 위한 이타행을 가리켜 '회향한다'고 한다. 돌려서 향하게  
한다는 뜻의 회향은 끝이 아닌 시작을 의미한다. 그녀는 사랑하던  
남편이 가고 그것을 깊이 깨달았다고 말한다. 남편은 틀림없이  
그의 성정에 맞게 극락으로 갔다고 확신한다고 말하는 그녀에게  
회향은 음식을 나누는 일이 되었다. 마음 맞는 벗들과 음식을 해서  
패스트푸드로 끼니를 때우는 어린 학생과 젊은이들에게 바른  
먹거리를 돌려주고 싶다는 것이 그녀가 전농 2동 골목에서  
공동체의 일에 참여하는 제 1의 이유이다. 팔을 걷어붙이고  
연잎밥을 짓거나 들깨 수제비로 보양식을 만드는 그녀를 자주  
만난다.

이름	김선유 (월촌공유부엌 다행이다 대표)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로 16길 6
연락처	02-2249-2177